

## 왜, 누가 사랑침례교회를 하는가?

성경말씀: 마12:9-21

나는 과거를 잊고 산다. 과거에 중요한 모임 등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내 아버지는 기억력이 좋아 시간 날짜까지 잊지 않고 다 이야기한다. 이복에서 살던 이야기, 나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 여하튼 잘 잊어버린다.

요즘 어찌하다 보니 교회 이야기,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 언어 습관, 말 센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 12년 전 처음 교회를 시작하며 처음 설교했던 것을 복습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998년 5월 4일 어떤 면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했던 설교를 모티브로 설교를 하려 한다. 제목 <상한 갈대> 그 안에는 왜 누가 이 교회를 하려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8명 정도, 이것이 꽃을 피워 이제 이런 규모의 교회,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하던 분들은 열 손가락 안에 든다. 나머지는 한참 지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래서 교회 설립 당시의 상황, 우리의 목표 등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분들도 있고 나가는 분들도 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 합류한 분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알릴 필요

<왜, 누가 사랑침례교회를 하는가?>, 새롭게 교회를 찾는 분들, Bible believer가 되려는 분들

### 왜 사랑침례교회를 하게 되었을까? 목회 철학: 교회 사이트

저는 제 행위나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와 상관없이 오직 전적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23세의 나이에 유학을 갈 때에는 훌륭한 공학도가 되어 후학들을 가르치고 인류를 위해 무언가 유용한 것을 만들어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책들을 통해 종교와 복음의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부터 믿음의 문제에서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부모의 유산을 따르자니 양심이 저를 괴롭혔고 믿음대로 행하자니 세상과 친구와 친지와 교우들과 등을 저야 하는 괴로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죽는 날까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부터 '침례와 세례' 그리고 '킹제임스성경과 개역성경'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팽배한 '칼빈주의(개혁주의) 장로교와 혹은 알미니안 감리교와 미국에서 우세한 세대주의 침례교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감리교 출신, 참으로 감사하다. 장로교 김남준, 맥아더, 칼빈주의 파이퍼 등 감사

그럼에도 성경대로 믿으면 침례가 맞고, 성경의 문제 구절들을 모두 비교하고 성경의 전달 과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킹제임스성경이 맞으며,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세의 일들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세대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현실을 살펴보니 내 양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소수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단이라는 오명이 뒤따르는 악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부끄럼이 없이 회계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심을 하고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함께 하며 잘 따라주었고 아이들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으며 부모님 역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바른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작정한 뒤 우선 '침례를 다시 받아 뱃티스트' (Ana-baptist)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다시 와서부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바른 성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른 교회였습니다. 이 둘을 놓고 생각해 보니 바른 성경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지난 15년 동안(1982년부터) 마음의 부담을 떠안고 결국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기간에는 성경 번역에 대한 부담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것을 끝내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이 일에 미쳐서 지난 15년을 거의 은둔 속에서 살았고 결국 읽을 만한 수준의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을 완역/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7~8년은 영어와 원어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후반부 7~8년은 성경이 우리말답게 매끄럽게 읽히도록 다듬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글을 쓴 지 10년이 넘는 지금도 성경 교정하고 있다. 죽을 맛이다.

이러는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결국 2001년도에는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시작했으나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목회 사역에 미숙하여 결국 2년 뒤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 문제로 방황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과 책들을 통해 목사의 책무를 어느 정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부터 교회 문제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몇 가정과 함께 다시 바른 교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자의 '영혼의 자유' (Soul liberty)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기로 작정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자유 의지이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자기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살며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해야겠다는 분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

목사는 옳다고 믿는 것을 가르칠 뿐이지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은 성도들의 실망: 가 보니 그렇지 않더라. 예: 성경 읽기, 금요 모임, 헌금 등 강요 안 함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모두 자유 교회였으나 AD 313년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국가 교회라는 전체주의 체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중세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국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교회의 특징은 한 마디로 '우리만 교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 신정 정치 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국가 연합 체제이며 신약시대에는 이런 체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제 체제하에서는 사람이 만든 신조나 법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엄청난 독재가 심지어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천주교회와 또 천주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모두 국가 교회입니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믿을 수 없고 교단이나 교파의 창설자 혹은 최고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으나 여전히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만의 국가 교회를 형성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천주교, 장로교, 침례교 등의 몇몇 교회만을 헌법을 통해 국가 교회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의 침례교 선조들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 '종교의 자유' 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근 17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국가 교회 시스템에 의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역사를 통해 저는 '자유 교회' (Free church)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자유 교회를 형성하고 성경에 기초한 '근본적인 자유 교회 운동' 을 시작해야 한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이단들과 교리가 강하다는 교회들이 문자적 의미의 국가 교회는 아니지만 실행 측면에서 국가 교회체제를 형성하여 '우리만 교회다' 라는 모토를 들고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며 다만 교회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데서는 결코 독단적 자만과 우월성과 배타적 독립성이 나오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고치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주님을 높이고 성경을 따르는 일만 존재합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한 사랑침례교회는 성경의 완전함을 믿으며 영혼의 자유를 따라 그리스도

를 추구하는 일을 기뻐하는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갈급한 그 영혼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미친한 한 공학도가 성경을 번역하고 목회 사역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후2:16)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이런 번민과 갈등과 육체적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다시 걸을 것입니다. 내 양심의 명령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이런 부담과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것입니다. 끝으로 세상일과 교회 일을 동시에 하려니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최우선 사명인 말씀의 선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 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격려로 또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여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제 영과 혼과 육을 돌아서 위로 솟구쳐 나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한 갈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교회를 할 수 있는가?

교회: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음, 마16:18, 내가 내 교회를

교회는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모습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세상: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선민의식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의식과 전통으로 고착됨, 주일성수, 십일조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면 훌륭한 교인, 바리새인처럼 됨 눅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롬10:2-3).

이것이 가장 잘 표출된 것이 안식일 문제

마12:9-13 설명,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막2:27).

그러므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 받기 전의 바울과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 예수님의 마음(1-8)

12장 1-8절에도 또 안식일 문제

설명

예수님의 포인트:

1.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나는 성전보다 큰 존재이다(6). 나는 안식일을 만든 존재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2.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12:7; 호6:6).

번제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희생물은 외적인 경배, 긍휼은 내적 경배, 내적인 경배가 외적인 경배보다 중요하다(치마).

####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18-21절)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1. 내가 택한 나의 종(사42:1-4)

- a)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된 최상의 섬기는 자(18절)
- b)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하는 사역을 하심(고후5:18-19)
- c) 죄로 인해 거룩함이 손상된 하나님께서 화해 사역을 위해 그분을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분을 성결하게 하시며(18절) 그분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신다(삼위일체).
- d) 보라(18절): 죄와 어려움에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라(요1:29)!

19절 온유하게, 우리의 외침도

- e) 이방인들을 위해 공의를 베푼다. 최후에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이사야서에는 진리)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분은 온유하게 이방인들(성도들)을 대하신다(마11:28; 사55:1; 계22:17).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사람들: 상한 갈대, 연기 나는 심지(20절)

1. 갈대: 안정이 없다(마11:7). 약하다.
2. 상한 갈대: 온전한 갈대는 주님이 다루지 않는다(지식, 명예, 성격, 사랑과 공훈이 부족한 자, 죄인 (sinner). 하나님의 은혜
3. 회심 이전에 주님은 상한 자만 고치신다(고전1:26-29). ★★★적용  
 눅15장의 탕자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공훈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

이렇게 상한 심령의 소유자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내 생각과 철학과 방식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과 감사가 나온다.

4. 회심 이후에도 주님은 상한 자만 쓰신다.  
 내면에 비통함이 있는 자,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 그래서 거의 풀이 꺾여서 낙담한 자(롬7:24).  
 자기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자, 그래서 거의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만 풀풀 내는 자, 이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주님의 일(내 일이 아님)을 하게 함. ★★★적용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맨다(사61:1).

1.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마5:3). 하늘의 왕국
2.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분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친히 구조하신다(히2:18).
3. 그래서 이런 자들은 공훈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히4:16): ★★★적용

#### 상한 심령의 특징

1. 죄 문제로 인한 갈등(나를 먼저 본다)
2. 심판보다 공훈을 먼저 생각한다(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님).
3. 자기를 무가치한 자로 여긴다.
4.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다(모이기에 힘쓴다).
5. 하나님의 말씀에 편다(사66:2)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6. 상한 심령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면을 성찰해야 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상하게 해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해야 함. 하나님은 공훈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 바른 교회

우리는 상한 갈대, 무익한 자, 공훈을 베푼는 자  
 사랑침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영혼의 자유 추구, 가장 중요한 가치, 바이블 벨리버  
 곳곳에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기를 원한다.